

3.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방법은?

소 호흡기 질병은 전염성 비기관염,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 폐렴 등의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병과 파스튜렐라성 폐렴, 헤모필루스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등의 세균이 원인인 질병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 질병은 단일 질병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흡기 질병의 발병 요인으로는 송아지의 초유 섭취량 부족, 장거리 수송, 다두 사육에 따른 밀사, 환기 불량과 보온관리 불량에 의한 추위 등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발병한 소의 콧물, 눈물, 분변 및 뇨 등의 배설물을 통하여 같은 축사에 있는 다른 소에게 전파된다.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기 혼합백신(전염성 비기관염, 바이러스성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 폐렴)을 3개월령의 송아지에게 1차 접종하고 4주 후에 2차 보강 접종한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1~2회 접종을 하는데 9월경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송아지를 외부로부터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송 전에 항생제를 주사한 후 수송하고, 수송 후 안정이 되면 파스튜렐라성 폐렴 백신을 접종한다. 축사 내에는 정기적인 청소와 환기로 암모니아 가스, 먼지, 습기 등이 없도록 하며, 밤낮의 기온 변화가 심한 날에는 적절하게 보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는 개체는 격리 수용하여 치료해야 하고 축사 내에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보온, 방풍 및 환기 상태를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호흡기 질환에 유효한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는데 마이코틸, 세파계 항생제, 페니실린, 썰파제 등이 폐렴에 효과적인 항생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증요법으로 거담제와 강심 이뇨제, 소염제, 해열제 등을 주사하는 것이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치료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더라도 3일 정도 연속 치료하는 것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우군 전체의 약 20~30% 이상이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전체 우군에 항생제를 3~5일간 집단적으로 투약하여 감염되어 잠복기에 있는 개체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가축질병방역과 / 063-238-7233)